# 여수시, 섬 관광 확대…‘복합 해양관광도시’ 재도약

## 섬박람회 계기 섬·바다·도시 잇는 체류형 관광 전환
## MICE·브랜드 경쟁력 기반…관광산업 생태계 확장

여수 돌산대교 전경.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여수는 올해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섬을 관광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365개의 섬들이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체험형·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도시와 섬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강화해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섬으로 이동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섬박람회 기간에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금오도, 낭도, 거문도 등 주요 섬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 글로벌 해양관광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시가 이번 섬박람회를 통해 새로이 제시한 섬과 도시를 연결하는 관광 패러다임으로 국제복합 관광·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여수 관광은 섬 관광 활성화와 함께 ‘스쳐가는 방문’에서 ‘머무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다양한 섬 자원을 연결해 여수 전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걷기·체험·휴식 등 ‘섬으로 완성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를 추진, 금오도와 낭도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비렁길 아웃도어 프로그램, 워케이션, 카약 체험, 마을 축제 등 이들 섬을 ‘머무는 관광지’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체험-소비-체류로 이어지는 관광 구조 전환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여수는 섬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 제주를 출발해 여수를 거쳐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항로 속에서 주요 기항지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약 5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13만t급 대형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여수항에 입항, 동북아 크루즈 관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관광객들은 진남관과 이순신광장, 오동도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천사벽화마을, 웅천친수공원, 웅천 장도공원 등 지역 곳곳을 방문, 관광객 소비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뒀다.

여수는 최근 4년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마이스(MICE) 산업도시 부문 연속 1위를 차지, 크루즈 관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입증했다.

앞서 여수시는 국제회의 유치 기반 강화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등과의 협업과 해외 여행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MICE 시장 대응력을 높여왔다. 그 결과 연간 1200여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며 약 9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여수가 보유한 섬과 바다, 도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크루즈 관광과 MICE 산업을 함께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복합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순천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부지 계약 체결 환영”

## 코스트코코리아-선월하이파크밸리 계약…2028년 개점 목표

코스트코 순천점이 들어설 순천 해룡면 선월지구 전경.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시는 해룡면 선월지구에 들어설 코스트코 순천점 부지계약 체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최근 해룡면 선월지구 사업시행자인 선월하이파크밸리와 광명 코스트코 본사에서 순천점 입점부지(해룡면 선월리 845번지 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9월 전남도·순천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의 투자협약 체결 이후, 이번 부지계약을 성립함으로써 향후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대·선월지구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IC, 내부도로 등 8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2200억여원을 확보해 교통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광주·전남 최초로 입점하는 코스트코 순천점이 지역 내 소비 확대는 물론 인근 도시의 소비 수요까지 흡수해 남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이번 부지계약 체결을 환영한다”며 “코스트코 순천점이 계획대로 입점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해룡면 선월지구 4만6000㎡ 부지에 총사업비 1020억원을 들여 순천점을 조성하고 250여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군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하나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48명 입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 곡성, 라오스 계절근로자 48명 입국

## 농촌인력 부족 해소…“농가·근로자 만족 노력”

곡성군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하나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48명 입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

환영 행사는 곡성군·농협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계절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 기념 촬영,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석곡농협과 옥과농협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입국은 항공편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곡성농협에 근무할 예정이던 30명의 계절근로자는 먼저 입국해 현장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에 입국한 인원들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제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단기간 내 대규모 인원의 동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48명의 근로자들은 최근 인천·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미입국 인원 12명은 추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입국 당일에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검사와 감염질환 검사, 일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했다.

군은 근로자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입국 이후 일정에 따라 한국 생활 적응교육, 근로계약 체결, 기숙사 생활 안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출입국사무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지문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농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력이다”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올해 광양매화축제 기간 광양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제공=광양시청

# 올해 광양매화축제 역대 최대 성과 올렸다

## 방문객 100만4319명·지역 경제 파급효과 972억 기록

지난 3월 개최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기간에 1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경제파급효과도 972억원으로 역대 최대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된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방문객이 100만4319명, 매표수입 7억3540만원, 경제파급효과가 972억원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다.

이는 시가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가진 ‘매화축제 결과보고회’에서 확인됐다.

방문객은 지난 2024년 99만7366명, 매표수입 7억106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올해는 방문객 6953명, 매표수입은 2440만원이 늘어나 최대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시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매표수입 7억3500만원, 직접효과 35억5000만원, 경제효과 972억원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24회 매화축제 47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것은 공연, 체험 , 먹거리를 결합한 체류형 축제 운영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엄재권 화백의 민화 특별전,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야외 매화 독서 프로그램, 비밀의 정원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봄날 러브레터, 인생네컷 포토부스, 보이는 스튜디오 등 체험형 콘텐츠 운영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했다.

이밖에도 김국 한 상, 광양불고기김밥, 광양매실한우버거, 매실담아도시락, 섬진강매화마실 카페존 등 먹거리 운영 확대와 도심권 셔틀버스 운영, 주차공간 확대 등이 방문객 및 경제파급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했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적산온도를 활용한 개화 시기 반영과 다양한 콘텐츠 운영, 효율적인 교통 관리가 함께 어우러져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다”며 “광양매화축제를 체류형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보성, 다향대축제 ‘먹깨비’ 할인 이벤트

## 공공배달앱 활용 지역 소비·소상공인 매출 견인

보성군이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에 맞춰 공공배달앱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마련했다.

보성군은 오는 5일까지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이용한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하루 200건씩 선착순으로 적용되며,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기본 5000원 할인에 더해 다향대축제 기념 5000원 할인, 전라남도 배달비 지원 3000원을 함께 적용받아 최대 1만 3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보성군 할인쿠폰과 전남도 배달비 지원 쿠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크다.

여기에 보성사랑상품권(모바일형)으로 결제할 경우 추가적인 할인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축제 기간 늘어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배달 수요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먹깨비’는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배달 플랫폼이다. 1.5%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앱 이용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먹깨비’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축제를 찾는 방문객과 군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박형석 기자 eco@gjdream.com